“답은 절에 있다”…日 퀴즈 릴레이 사찰순례

네트워크에 15개 문항 질문 게시
본문불립종 소속 15개 사찰 방문
각 사찰서 해답카드를 받아 진행
QR 법문과 온라인 무료 상담도

박영빈 객원기자



불교 퀴즈 릴레이 ‘답은 절에 있다!’의 안내 화면.
사진출처=카나가와 불립사원 네트워크 공식 홈페이지

일본 카나가와(神奈川)현에 소재한 본문불립종(本門佛立宗)소속 15개 사찰이 여름방학 시작에 맞추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불교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며 사찰을 순례할 수 있는 불교 퀴즈 릴레이를 개최해 화제다. 8월 4일, 일본의 ‘엣 프레스’는 새로운 형태의 사찰순례에 대해 보도했다.

본문불립종은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니치렌(日蓮)계열의 종단으로 약 160여 년 전에 세워진 종단이다. 일본 불교사에서는 신흥종단 축에 드는 종단이며 다양한 포교방법, 특히 해외 포교 활동으로도 입지가 탄탄하다.

이중 일본 카나가와 교구의 젊은 스님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모임인 ‘카나가와 불립사원 네트워크’는 현대인들이 불교에 대한 의문을 해소함과 동시에 사찰을 순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불교 퀴즈 릴레이 프로그램 ‘답은 절에 있다!’를 8월 6일부터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불립사원 네트워크 측은 “사찰과 불교가 존재한다는 것에 만족해선 안 된다, 불교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은 이전부터 진행해온 프로젝트인 ‘불교 TO THE PEOPLE’의 일환으로 여름방학을 맞이해 개시했다”고 전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기간에 맞춰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역사와 자연이 함께 하는 사찰들을 견학하며 불교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진행된 이번 퀴즈 릴레이는 불립사원 네트워크에 게시된 15개의 질문에 대해 카나가와 현 전체에 위치한 15개소 본문불립종 사찰을 방문하고, 각 사찰에서 대답과 해설이 쓰인 카드를 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해답카드에는 QR코드가 찍혀 있어 이를 통해 릴레이에 참가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법문도 준비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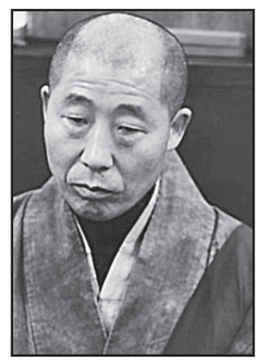
질문은 “사람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절과 신사는 어떻게 다른가”와 같이 일반적인 질문부터 “불교를 수행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불교를 믿으면 어떤 것이 좋은가?”와 같이 신행활동과 직결되는 질문까지 다양하게 배분되어 있다.

불립사원 네트워크 측은 “이번에 정해진 질문들은 모두 스님들이 신도들에게서나 사회활동 중에 자주 받는 질문에서 추려냈다”면서 “간단하지만 불교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는데 중요한 질문들”이라고 전했다. 15개소 사찰서 모든 대답지를 받고 법문들은 참가자들에게는 상품도 증정될 예정이다.

불립사원 네트워크 측은 퀴즈 릴레이 뿐만 아니라 해당 15개소 사찰서 스님과의 무료상담 프로인 ‘승담(僧談)’도 진행 중이다. 승담은 릴레이 참가자뿐만 아니라 스님과 이야기 하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다. 절에 방문하거나 직접 대면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이들을 위해 전화나 온라인 등으로도 상담을 받고 있다.

북미자혜불교회 회주 삼우 스님 원적

8월 7일 토론토 선련사서 입적
북미서 한국 불교 알린 선지식
오는 9월 24일 추도 법회 봉행



미국에서 한국불교를 알려왔던 북미자혜불교회(BSCW:Buddhist Society for Compassionate Wisdom) 회주 삼우 스님<사진>이 8월 7일 오후 11시 40분(한국 시간 기준) 캐나다 토론토 선련사에서 입적했다. 법납 64세, 세납 82세.

삼우 스님은 1941년 3월 3일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17세에 상주 남장사로 입산 출가했다. 1958년 부산 범어사 동산 스님을 계사로 수계받고 설봉 스님에게서 참선 수행을 했다.

1966년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 1967년 맨해튼의 아파트에서 선련사를 개원하고 전법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보시자가 없었기 때문에 운송업체에서 일 하고 탁발도 했으나 비자문제로 캐나다 토론토로 건너갔다. 그곳에서도 경제적 문제로 우체국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오랜 지하생활로 병을 얻기도 했다. 1972년 토론토 지하실로 참선을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자 선원을 열고 전법을 시작했다. 이후 미국 앤아버(1982년), 시카고(1992년), 뉴욕시 맨하탄(2011년), 멕시코시티(1984년)에 선불교 선원을 창건했다. 선련사를 찾는 신도들은 대부분 미국과 캐나다 현지인들이었고, 개중에는 목사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삼우 스님은 본격적인 전법을 위해 1990년 ‘북미자혜불교회’를 창립했고, 초심자를 위한 불교 영문계간지 〈스프링 윈드(Spring Wind)〉를 발간했다. 현재 자혜불교회는 북미에서 다원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보편적 구제라는 원력을 실천하고자 1985년부터 3년 과정의 미륵상가대학(Maitreya Buddhist Seminary)을 개설해 한국불교 해외포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삼우 스님의 추도법회는 9월 24일 토론토 선련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印 고등법원, 힌두신상 오해받은 불상 원상복귀 명령

10년 논쟁 끝에 최종 결론
국가 고고학 조사 큰 역할


힌두교 신상으로 오해받아 왔던 무니압판 불상. 사진출처=타임즈 오브 인디아

오랫동안 힌두교 신상으로 오해받아 모셔졌던 고대 불상에 대해 인도의 마드라스 고등법원이 원상복귀 명령을 내렸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현지 불교도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반발하는 현지 여론도 거세다. 8월 4일 ‘타임즈 오브 인디아’ 등 현지 언론들은 이례적인 해당 판결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남인도 최대 주인 타밀나두주의 최고 판결기관인 마드라스 고등법원은 지난 4일, 살렘(Salem)지구의 힌두교 사원인 탈라벳티 무니압판(Thalavetti Muniyappan) 사원에서 주신으로 봉안된 불상에 대해 “더 이상의 힌두식 예배와 종교행위를 금지하며 불상 본연의 모습으로 원상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2011년 살렘지구 한 불교재단이 타밀나두주 정부를 상대로 힌두교 사원에서 힌두교의 신으로 모셔진 불상에 대해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달라 제소한 것에서 시작된 재판이 10년이 넘어서야 최종 결론이 난 것이다.

원고인 불교재단 측은 “해당사원은 불교사원 유적이며, 파괴되지 않은 불상들이 어느 순간 힌두교의 신으로 숭배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사원을 관리하는 타밀나두 주정부의 힌두종교와 자선단체 관리부는 “이 사원은 오랫동안 마을에서 힌두사원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이 조각상들이 불교의 것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마드라스 고등법원 측은 팽팽히 맞서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 지난 2017년, 국가 고고학부서에 조사를 지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지했다.

최종적으로 제출된 조사 보고서에서 조사위원들은 “해당 조각상은 하나의 자연석으로 만들어 졌으며 남성을 묘사하고 있다. 연꽃좌대 위에 결과부좌로 앉아 있으며 손은 선정인을 하고 있다. 나발을 묘사하는 곱슬머리와 정수리에 솟은 육계, 길쭉한 귓불은 모두 이 조각상이 명백히 불상임을 보여준다”고 발표했다. 또 수석 조사관은 “입수 가능한 현지의 고고학적, 역사적 증거를 모두 검토하였으며, 조각상 역시 불상을 조성하는 32상과 80종호의 특징을 대부분 갖추고 있으나 미간의 백호는 표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판결을 내린 마드라스 고등법원의 아난드 벤카테쉬 판사는 “고고학적 조사와 양측의 주장을 주의 깊게 분석한 결과 문제의 조각품을 불상이라고 판단한다. 불상을 계속해서 힌두신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고고학적으로도, 불교교리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판결에 따라 사원의 불상에 부착된 힌두교 상징물이나 안료 등은 제거될 예정이며, 더 이상 불상앞에서의 힌두교 의식과 예배는 금지되지만, 일반 대중이 방문하고 관람하는 등의 학술적인 행위는 허용된다. 또 법원은 불상에 대한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사원에 게시할 것도 지시했다. 이후 사원과 불상은 주정부 고고학부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해당 판결에 대해 현지 불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불자는 SNS에서 “고등법원의 사려 깊은 판단을 환영한다. 이 판결을 선례로 남인도에 산재한 불교 유물들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타밀나두주 내에는 힌두교 사원으로 바뀌거나 힌두신상으로 모셔지는 불교유적과 유물들이 다수 산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인도에서 불교가 자취를 감춘지 1천년이 넘었다. 그동안 힌두신상으로 모셔진 역사성을 무시해선 안되며 이번 판결은 종교 편파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中, 티베트 지도자 생일 앞두고 규제 강화

“전국대표대회 앞두고 규제 더 강화돼”



티베트 불교 지도자 캬브제 키르티 린포체(Kyabje Kirti Rinpoche · 사진)의 80번째 생일에 중국이 티베트인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의 사진이나 축원을 온라인상에 게재하지 말라며 단속에 나선 것이다.

RFA 등 외신의 8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캬브제 키르티 린포체의 생일인 지난 8일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진이나 축원을 온라인상에 올리지 말라”며 “명령을 어길 시 체포하겠다”고 엄포했다.

캬브제 키르티 린포체는 쓰촨성 아바현의 티베트 사찰인 키르티 사원의 지도자였으나 현재 달라이 라마와 함께 인도 다람살라에서 망명 중이다. 1962년 달라이 라마로부터 더 높은 불교 품계를 받은 후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했다.

티베트의 한 소식통은 “중국 정부는 티베트 불교 지도자들에게 축하 행위를 경고했다”며 “거역할 경우 체포해 엄벌에 처한다고 겁박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앞서 2021년에도 캬브제 키르티 린포체의 생일을 맞아 쓰촨성 티베트 자치주 내 수도원들의 승려들이 축전을 올리자 이를 금지시킨 바 있다. 그 기간 동안 당국은 승려들의 외출도 집회도 허용하지 않았다.

망명 중인 한 티베트인은 해당 매체에 “작년에 이미 중국 정부의 규제와 감시를 받아서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라며 “우리는 개인 채팅방에서까지 생일 축하를 조심하자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로 인해 규제가 더 심해진 것 같다”며 “그러나 우리는 린포체의 생일을 축하하고 그의 장수를 기원하는 공양을 바치길 고대하고 있다”고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코로나 이후 법회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정 2022년 8월 24일(수) ~ 26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8월 24일, 수)	2일차 (8월 25일, 목)	3일차 (8월 26일, 금)
09:00~12:00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원리와 사례’	현대인을 위한 포교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불교 속의 과학 과학 속의 불교	뉴노멀 시대 온라인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